

● 인성이 전투력이다

<2> 꿈·희망·미래재단과 연계한 육군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

# 초급간부 1만명 교육... 인성, 기본부터 '착착'

육군이 올해 추진하는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 종합 추진 계획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1박2일간 진행되는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를 꼽을 수 있다. 병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복무 기간 5년 차 미만 초급간부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인 데다 올해 교육대상만 1만여 명으로 그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 꿈·희망·미래재단과 업무협약

이런 대형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육군은 지난 11일 장준규 참모총장과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꿈·희망·미래재단은 야전부대 초급간부와 간부 양성 교육 기관의 생도 및 후보생들을 위한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 운영을 지원하고 야전부대 인성교육 전담교관 양성을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 자존감 향상·소통 역량 강화의 계기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육군과 재단이 초급간부 4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본격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캠프에 참가한 초급간부 중 94%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 것.

● 6월까지 인성함양 캠프·원격교육

재단은 협약 체결과 함께 다음 달부터 오는 6월까지, 지난해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를 수료한 인원 중 육군이 선발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이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모범간부는 소집교육을 거쳐 야전부대 인성교육 전담교관으로 임명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초급간부를 위한 인성함양 캠프도 확대 운영된다. 상반기에는 재단 소속 전문강사들이 캠프를 운영하고, 오는 7월부터는 상반기 선발된 야전부대 인성교육 전담교관들과 재단 소속 강사들이 교육 전담팀을 구성해 부대 규모에 따라 연간 4~12회의 교육을 할 예정이다.

● 소통 기술 교육 등 프로그램 다채

캠프는 신체 움직임을 통해 발상의 유연화를 꾀하는 '빚장 열기', 경청을 통한 존중과 배려를 익히는 '때문에·덕분에',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기술을 체득하는 '소통의 달인', 원만한 인간관계를 주도하기 위한 대화 기술을 익히는 '친친백서(親親百書)', 자기 존중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을 키우는 '셀프 토크' 등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 육군 지상전연구소 연구관 선발 공고

**선발개요**

- 선발인원 : 5명
- 채용일 : '17. 3. 1 부
- 계약기간 : 최초 22개월('17.3.1~'18.12.31), 1년 단위 재계약

**선발일정**

| 구분 | 공고/지원서 접수           | 서류심사     | 면접평가           | 합격자 발표 |
|----|---------------------|----------|----------------|--------|
| 일정 | '17.1.10(화)~1.24(화) | 2. 13(월) | 2. 20(월)~21(화) | 최종선발 후 |
| 비고 | 인사사령부               |          | 지상전연구소         |        |

※ 선발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인터뷰

스티브 김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 “인성교육 환경 조성 위해 지휘관들의 인식이 중요”



“다음 세대에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애쓰는 일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육군과 초급간부 인성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지난 11일 육군의 초급간부 인성함양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스티브 김(한국명 김윤중·67·사진)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과 군과의 인연은 2010년 무렵 시작됐다. 젊은 시절 육군3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하며 이전에 몰랐던 자신의 사업가적 기질을 발견했던 그가 장병들에게 군 복무 기간을 삶의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주기 위해 군부대 무료특강을 시작한 것. 군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최전방 GOP 초소에 컨테이너형 북카페 6개 동을 기증하는가 하면 무료 특강과 강연 콘서트도 기부했다. 지난해에는 초급간부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가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향후 5년간 매년 1만여 명의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인성함양 캠프를 지원하고 전담교관까지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1박2일간의 캠프 참가 비용이 1인당 11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50억 원 상당의 교육을 지원하는 셈이다. 김 이사장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캠프에 대한 각급 부대 지휘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인성교육을 위한 환경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지휘관의 인식입니다. 초급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가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스티브 김 이사장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두 개의 업체를 창업해 성공시켰다. 1999년 두 번째 창업 회사인 자일랜을 무려 20억 달러(약 2조 원)에 매각,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는 명성을 얻었다. 2007년 영구 귀국, 자신이 거둔 성공의 열매를 고국에서 쓰기 위해 2001년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을 설립했다. 저서로는 '꿈·희망·미래 스토리' '드림 데이트, 2조 원의 신화 스티브 김의 행복 프로젝트'가 있다. 김가영 기자 ■ 편집=신연식 기자

① 지난해 실시된 '초급간부 인성함양 캠프'에 참여한 한 초급간부가 자신의 흥미와 주요 관심사 등을 주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② 캠프에 참가한 초급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③ 초급간부들이 캠프 중 받은 상장과 부상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 위부터) 육군본부 제공

육군은 이런 프로그램이 창의·용기·책임·존중·협력·충성·정의 등 육군 장병 인성 바로 세우기의 7대 덕목을 초급간부들이 익히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71@dema.mil.kr

**대상 / 자격요건**

|          |   |
|----------|---|
| 민간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관련 분야 연구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li> <li>채용일 기준('17.3.1)이전 석·박사 학위를 마친 자</li> <li>현재 학교 및 연구소 근무 인원은 채용일 이전 연구종료 후 채용에 문제 없는 자</li> </ul>          |
| 현역 / 예비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역 : 채용일('17. 3.1)이전 전역예정자</li> <li>예비역 : 채용일 기준 전역 3년 이내 자('14.1.20이후 전역자)</li> <li>* 단, 군 관련 업무(군사교육기관 교수 등) 종료 후 3년 이후 자도 가능</li> </ul> |

- 미래 육군정책/전략/정책현안에 대한 식견과 능력을 갖춘 자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보유한 민간·예비역
- 정부, 타 기관과 용역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자

**지원서 접수방법 등 세부내용** 인터넷 '육군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공지사항, 인트라넷 육군정보포털 및 '육군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